/지역 단신/

벌교읍번영회 '상거래질서확립 캠페인'

벌교읍 번영회(회장 진홍구)는 구랍 28일 벌교읍 기관·사회봉사단체회원과 이장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내 상가를 돌며 '상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번영회는 이날 홍보 전단 1천200부를 배포하고 "정량·정품판매,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통해 다시 찾는 벌교를 만드는데 상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진도 소포 전통문화보존회 농촌문화상

진도군 소포리 전통문화보존회(대표 김병철)가 농협문화복지재단이 제정한 제 1회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촌문화'부문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또 곡성군 심청노인사랑복지회(대표 최재영)는 '농촌복지' 부문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개인 2천만원, 단체 4천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2월에 열린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수 화양·소라면 식수난 해결

8천만원 들여 상수도 공사

여수시가 화양면 화동 마을(100가구)과 소라면 사곡 4구 마을(48가구) 2곳에 8천만원을 투입, 상수도 공사에 착수한다.

이들 마을은 상수도 시설이 없이 물탱크와 관정에만 의존, 매년 겨울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어 왔다.

시는 오는 10일께 공사에 착수해 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수원지 공사 등을 통해 매년 되풀이 되는 섬지역 식수난 해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화양면, 남면, 화정면 일부 섬마을 주민들이 겨울철 식수 부족으로 선박에 의한 비상 급수를 받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전국 도매시장 비포장 무·배추 반입금지

농가 포장비 등 추가 부담 '고통'

인건비 외 운송비용도 크게늘어

올해부터 포장 되지 않은 배추와 무의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전남지역 생산농가들이 포장재 비용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매시장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농림부의 배추·무 포장유통사업 전면확대 시책에 따라 올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배추와 무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그물망·골판지상자·비닐포대·플라스틱상자 등을 이용해 포장을 해야한다.

이에따라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지역을 비롯, 영암 등 산지 농민들은 중국산 김치의 수입급증과 배추값 폭락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다 포장출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만2천 평 밭에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최재문(50·해남군 화원면)씨는 "100평에서 800포기 정도의 상품을 포장 출하할 경우 270박스 정도가 소요돼 포장비와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고보조는 포장재 재료에 따라 60~90%선에 머물러 포장재 구입비용과 인건비 추가부담을 농민들이 떠안게 됐다.

한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10일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생산자가 배추·무를 출하할 경우 포장재 구입단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062) 970-6270

/송기동기자 song@

정해년 첫 해돋이

1일 오전 8시 여수시 향일암 앞바다에 정해년 첫 해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새해 첫 임무수행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곡성 친환경농업 급신장

인증면적 작년 1,311ha… 전년의 2배

곡성군 친환경농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있다.

곡성지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05년 650.2ha에서 2006년에는 1천311ha로 배가 넘었다.

작목별로는 벼가 580ha에서 1천140ha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과수 : 60ha→115ha ▲채소 : 10ha→20ha ▲특작·기타 : 0.2ha→36ha로 각각 증가했다.

이같은 친환경인증 면적은 곡성 전체 경지면적 대비 15%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에따라 곡성군은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올해는 1천700여ha가 늘어난 총 3천600ha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새해맞이 강진 울트라마라톤

'새해맞이 강진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구랍 31일 강진군 종합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73명이 참가해 이날 오후 7시 강진 종합운동장을 출발, 강진군과 장흥군 일대 100㎞ 코스에서 펼쳐졌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여수세관 '2006청렴세관' 선정

여수세관(세관장 피재기)이 최근 관세청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2006 청렴세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세관은 지난 2000년 이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올 2월에는 대성관세사무소 등 6개 유관업체와 청렴약정을 맺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청렴세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세관은 이에따라 청렴세관기를 게양하고 세관 현관에 '청렴현관'을 붙이기로 했다.

청렴세관은 관세청이 최근 3년 이내에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세관중 7곳이 선정됐다.

청렴세관으로 선정되면 포상금 지급과 감사 및 감찰 면제, 예산확대 지원과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강진 군민장학금 모금 2년연속 20억 돌파

강진 군민장학재단 (이사장 황주홍)의 장학기금 모금액이 2년 연속 20억 원을 돌파했다.

강진군은 지난 한해 군민장학재단 기금을 모금한 결과 1천278건, 20억 6천여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올해 장학사업으로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회생과 ▲명문학교 육성사업 ▲평생학습 도시 유치 ▲강진 외국어 교육 특구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군민 1계좌 갖기 운동을 벌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황주홍 이사장은 "2년 연속 20억원 기금 달성은 강진교육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며 "강진교육 발전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